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홍 연 희

2011년 8월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성봉

홍연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홍연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 연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상호 결합된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13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736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 IPPA-R(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만 발췌하여 번안·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적 유능감 척도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Pearson's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regression), 일원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 모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은 모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 모 애착 하위요인 및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중 대인적응성과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부 애착 하위요인중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 애착 하위요인인 신뢰감은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중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모 애착 하위요인중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 애착 하위요인인 신뢰감은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 모두와 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불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부, 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사회적 유능감이 높으며, 부모 모두와 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불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유능함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 애착 중 의사소통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5
3. 용어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애착	7
가. 애착이론과 내적 실행모델	7
나. 복합애착의 개념과 특성	10
2.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13
3.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15
가.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18
나.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21
다. 복합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24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연구도구	29
3. 연구절차	31
4. 자료처리 및 분석	31
IV. 연구결과 및 해석	33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34

2. 부,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36
가.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36
나.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37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39
V. 논의 및 결론	43
참고문헌	50
Abstract	57
부 록	59

표 목 차

<표Ⅲ-1> 인구학적 통계	28
<표Ⅲ-2> 부모 애착 문항 구성과 신뢰도	30
<표Ⅲ-3> 사회적 유능감 문항구성과 신뢰도	31
<표Ⅳ-1> 측정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33
<표Ⅳ-2>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34
<표Ⅳ-3> 부, 모 애착 하위요인 및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35
<표Ⅳ-4>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36
<표Ⅳ-5>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38
<표Ⅳ-6> 부 애착 상위-하위 집단별 분포	40
<표Ⅳ-7> 모 애착 상위-하위 집단별 분포	40
<표Ⅳ-8>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하위집단별 분포	40
<표Ⅳ-9>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41
<표Ⅳ-10>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42

부 록 목 차

<부록 1> 질문지	60
<부록 2> 부모 애착척도	61
<부록 3>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척도	63
<부록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6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일원으로 살아가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도 적응해야 하는 과도기 단계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집단따돌림, 등교거부,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정서불안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이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며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의 적응을 비롯한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O'Malley, 1977; Waters, Wippman & Sroufe, 1979; 김현주, 2009, 재인용).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또래 및 성인들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아동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우울, 행동장애, 사회 공포증, 자폐증,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이희영·최태진, 2007).

성별,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사회적 환경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은 연구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중의 하나이다. 부모와의 애착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주요 변인으로 두는 이유는 아동은 생후 처음으로 맺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배우기 때문이다(오성경, 2010).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 신념과 신뢰를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Bowlby(1988a)는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애착관계가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내적 실행모델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이나 사고, 감정을 어떻게 조직하고 접근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규칙체계로 자신과 애착 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다.

Sroufe와 Walters(1977)는 애착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와 더불어 전 생애적 견해를 통해서도 애착은 전 생애에 걸쳐 형성이 되며 초기 양육자와 애착이 잘 형성된 영아는 성장후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친밀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애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크게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김재현, 2007; 노명희, 1995; 민정원, 2001; 양정화, 2002; 윤소영, 2001; 이숙희·김숙령, 1996; 홍계옥·최경순, 1995).

과거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1차적인 역할을 하던 시대에는 어머니와의 애착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 들어 여성 취업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의하여 더 이상 자녀양육이 어머니만의 몫이 아니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애착과 역할에도 관심이 증대되었다.

Schaffer와 Emerson은 유아가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애착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이영환, 1995), 최한순(1995)도 부모는 각각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유아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쪽의 영향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Cox 등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속성은 동일하지 않은데, 어머니는 전형적으로 애착인물로 선호되고 아버지는 놀이친구가 됨으로써 아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찾지만 긍정적 감정 일때는 놀이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였다(이현미, 1996).

부, 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도 상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McDonald와 Parke(1984)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놀이패턴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패턴으로 사회적

유능감과 연합됨을 밝히고 있다(박경희, 2005, 재인용).

부모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보통은 1차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의 질이 아버지보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나(이수하, 2005; 이숙·정미자, 1995; 지수경, 2001), 아버지와 애착도 어머니와의 애착 못지않게 사회적 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민경, 2009; 김현주, 2009; 김현진, 2009; 박경희, 2005; 이하경, 2003; 이희영·최태진, 2007).

따라서 아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이며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 어느 한쪽에서 받는 일방적인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단일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애착상태와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단계상 영유아나 청소년과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인 발달 과정 중에 있는 학령기 아동의 행동을 학령기 아동 이외의 발달단계에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들로부터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박진아, 2001).

최근에는 애착과 관련하여 전 생애적 관점과 함께 애착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아버지, 형제, 대리 양육자, 교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의 복합 애착(multiple attachment)의 영향이다.

Howes(1999)는 복합애착 관계 내에서 영아의 내적실행모델의 형성과정에 대해 위계적, 통합적, 독립적 형성 모델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영아가 주로 어머니에게 양육되었던 시대의 초기 애착이론은 내적 실행모델의 위계적 형성 모델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업모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의 양육을 받는 영아가 증가하면서 영아의 애착관계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애착관계가 연합하여 영아발달에 통합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아의 특정 발달영역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내적 실행모델의 통합적 또는 독립적 형성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애착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van IJzendoorn 등(1992)은 보육교사, 아버지, 어머니와의 통합적 애착의 질이 어느 한사람과의 애착안정성보다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을 잘 예측한다고 하였으며(신지연, 2004, 재인용), 이희영·최태진(200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높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과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낮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영환(2002)의 연구 결과는 이들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와 어느 한 쪽에게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현재까지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부-모 복합애착유형의 연합적 영향력(joint effect) 혹은 상보적 영향력(compensatory effect)과 관련하여 한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다른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을 보상하거나 완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이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의 연합적 또는 상보적 영향력과 더불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고려한 복합애착연구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서로 일치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가에 대한 문제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동들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으며, 유아의 안정과 보살핌에 대한 욕구에 반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민감성과 반응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아가 한 부모 혹은 한 양육자와는 안정 애착 관계가 되고, 다른 양육자와는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관계적 입장과 기질적 입장을 주요 논쟁점으로 다루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복합애착 연구는 다양한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발달에 있어 애착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을 더 확대하여 학령후기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내적 실행모델을 검증하고, 학령기 아동 발달에 있어 부모 애착의 중요

성과 역할을 확인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부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 정의

가. 애착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의미하며 하위개념으로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세 요인을 포함한다.

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 유지하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위개념으로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다섯 요인을 포함한다.

다. 복합애착

복합애착이란 아동이 어머니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애착하는 것으로 두 사람 이상에게 애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애착수준에 대하여 4분위를 활용하여 애착수준 상위 25%와 하위 25%로 나누어 두 집단을 상호 교차하여 애착상위-애착하위 집단을 설정한다. 부-모 애착의 순서로 상위-상위집단, 상위-하위집단, 하위-상위집단, 하위-하위집단으로 구분한다.

- ① 상위-상위 집단: 부와 안정 애착되고 모와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일치 애착 유형을 말한다.
- ② 상위-하위 집단: 부와는 안정 애착 되었으나 모와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불일치 애착 유형을 말한다.
- ③ 하위-상위 집단: 부와는 불안정 애착 되었으나 모와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불일치 애착 유형을 말한다.
- ④ 하위-하위 집단: 부와 불안정 애착되고 모와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일치 애착 유형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애착

가. 애착이론과 내적 실행모델

인간의 발달과 관련하여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애착이론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출생초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이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애착(attachment)이란 용어는 Bowlby(1958)가 영아와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애착은 발달심리학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발달심리학의 중요 구성개념으로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다.

애착이라는 개념은 특정 대상과의 단순한 정서적 관계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오랜 기간 동안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영아에게 있어 양육자와의 애정적 유대(affectional bond)는 영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기능(biologic function)으로 말미암아, 모 자녀 애착관계에서 영아는 자신의 욕구가 적절히 받아들여질 때는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느끼지만 어머니와 격리되거나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될 때는 분노나 슬픔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김영옥, 2003).

애착이론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 John Bowlby와 Mary Ainsworth를 꼽을 수 있다. 애착이론은 이 두 사람의 공동작업이라고 할 만큼 애착이론의 발달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Bowlby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기존의 관점들과는 상이하게 다른 이론적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애착이론의 초석

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생 초기의 어머니와 영아 간의 유대감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Ainsworth(1973)는 Bowlby의 애착이론을 지지하면서 애착 이론을 한층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애착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격리저항이나 접근추구를 애착의 지표로 삼았으나 Ainsworth는 애착과 애착행동을 구별하였다. 애착은 특정한 개인에게 갖는 지속적인 감정 및 정서적 유대로 비교적 안정된 성향을 지니는 반면 애착 행동은 행동주의적 요소를 지닌 용어로 유아가 특정의 선호하는 사람에게 근접(proximity)하고 근접을 유지하려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말하며(옥정, 1998), 상황에 따라 애착행동의 형태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애착은 유기체의 내재된 성향으로서 관찰할 수 없는 반면 애착행동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애착행동으로는 울기, 쫓아 다니기, 매달리기, 따라 하기 등이 있으며 유아가 애착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분리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활성화 되었다가 애착대상과 다시 결합되면 사라지거나 약화된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성장해 감에 따라 애착행동의 빈도와 강도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언어와 같은 상징적 의사소통(예, 편지쓰기, 전화걸기)을 통해 애착 대상과의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부모의 존재 유무의 영향보다는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부모의 유용성(availability)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에 의해 더 중요해진다(정현화·오미경, 1993).

초기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부분 유아의 애착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애착에 관한 연구가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는 전 생애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즉 유아의 애착 행동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지만 애착의 질은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유지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애착이론에서는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기 이후의 애착 발달 연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착관계가 이후의 아동 발달에 미치는 과정은 주로 Bowlby(1982)가 제시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 개념에 근거하는데, Shaffer(2000)는 '영아가 양육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자신과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으로 내적 실행모델을 정의하였고, Main과 동료들(1985)은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획득 및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 체계'로 규정하였다. 즉, 내적 실행모델이란 개인이 초기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경험의 질에 따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 능동적인 정신적 표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요한 타인(주로 어머니)과 관계를 맺는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체계를 말한다.

Bowlby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애착이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 내적 표상이 형성되고, 이는 이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으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내적 표상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내적 표상을 확인시켜 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내적 실행모델의 질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유아가 지지와 보호를 요청했을 때 애착 대상이 대체로 잘 반응해 주었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애착 대상으로부터 지지적인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한 유아 자신의 판단이다(Marrone, 2005; 서명원, 2009, 재인용).

유아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애착대상인 주 양육자로부터 기대하는 도움을 받고 적절하고 일관적인 반응을 받은 유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주 양육자가 이를 무시하고 비일관적인 부적절한 반응을 해준 유아 사이에는 질적으로 상이하게 다른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 양육자가 기대하는 도움을 주고 수용적인 자세로 욕구를 적절히 해소 및 받아준다면 유아의 내적 실행모델에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라는 표상과 더불어 유아 자신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표상을 발달시키게 될 것이고(Bretherton, 1985), 이와는 반대로 애착대상인 주 양육자가 유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아가 보내는 반응과 신호를 무시하고 기대하는 도움을 계속적으로 거부 및 무시하는 경우에는 유아의 내적 실행모델에는 부모에 대해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비수용적인 표상으로 인지하며 유아 자신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표상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내적 실행모델은 일단 형성이 되면 변화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개인의 내적 실행 모델과 일치하는 정보는 기존 내적 실행모델을 강

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용되지만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왜곡과 방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Bowlby, 1989).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의 개념에 근거하여 영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애착 연구가 최근에는 아동기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아동기 애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에 보여주었던 애착대상에 대한 강렬한 애착행동이 아동기에는 감소하거나 잘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인지가 발달하면서 영유아기에 애착행동이 유발되었던 상황이 다른 행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셋째, 애착체계의 목표가 수정되어 애착대상에 대한 근접추구보다는 애착대상에 대한 유용성(availability)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주 양육자에 대한 신체적 근접추구행동은 주 양육자와의 사진을 보거나 전화를 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Kerns et al., 2004; 정옥분외, 2009, 재인용).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과 경험이 또래관계 및 학교에서의 적응과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령후기 아동의 애착의 기능 및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복합애착의 개념과 특성

전통적인 애착이론에서의 내적 실행 모델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1차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후 중요한 타인들(아버지, 형제, 교사 등)의 애착 형성에 위계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retherton, 1985). 즉 유아는 1차적 애착 대상과 어떠한 애착의 질을 형성하였는지에 따라 2차적 애착 관계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관계가 유아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 보는 Bowlby의 내적 실행모델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복합애착에 대한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한희정, 2011).

복합 애착(multiple attachment)이란 유아가 두 사람 이상의 대상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유아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 이외 다른 대상과도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들과의 애착 관계의 질은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Schaffer & Emerson, 1964; 서연주, 2006, 재인용).

지난 20년간은 애착과 관련하여 유아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유아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외의 유아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애착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자녀양육을 거의 1차 양육자인 어머니가 전담하였지만 현대에 들어 여성들의 취업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 한 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유아들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주변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유한 자녀양육의 책임도 더 이상 어머니만의 몫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애착과 관련된 연구 대상도 어머니뿐만 아니라, 유아의 주변사람들로 확대되어진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 유아가 어머니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들과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 거의 영향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Goossens & vanIjzendoorn, 1990; Howes & Hamilton, 1992b ; Howes, et al., 1988; Mitchell, 1996; Sagi, et al., 1985; Raikes, 1993; Schaffer & Emerson, 1964; VanIjzendoorn, et al., 1992; 서연주, 2006, 재인용). 즉 유아가 어머니와 다른 사람에게 애착하는 것이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애착이론가들은 유아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또는 다른 양육자에게도 접근하며, 이들로부터 양육행동을 이끌기 위해 울기, 소리내기, 매달리기, 미소짓기 등과 같은 신호를 방출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유아의 신호에 대한 양육자의 일관적이고 신속한 반응은 유아로 하여금 양육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지각하게 해주어 안정 애착의 기초를 이루지만, 예측할 수 없고 비일관적인 반응은 불안 애착을 야기한다(이영환, 1998).

이와 같이 양육자의 서로 다른 반응양식은 유아가 양육자에게 서로 다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는 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아버지하고는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로 아버지와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어머니하고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애착 관계가 어떻게 아동 발달에 서로 보완적이며 총체적인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Hower & Hamilton, 1992a; Howes Rodning, Galluzzo &

Myers, 1988b; 서연주, 2006, 재인용).

Tompson(1999)은 복합애착관계에서 영아의 내적 실행모델이 다면적 특성을 갖는 이유를 어머니와 형성했던 초기의 단순한 표상과정이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내적실행모델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새롭게 업데이트 되며, 영아의 자신의 관계와 개인적 경험에 대한 초기 표상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된 맥락에서 형성되어서라고 설명한다(Fivush, 1994; Nelson, 1993; Oppenheim & Waters, 1995; 신지연, 2004, 재인용). 즉, 복합애착 형성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영아의 내적 실행모델이 어머니 이외에 중요한 타 양육자와의 관계로부터 다면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복합애착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도 반영되어 교사와 관련된 애착, 형제자매와 관련된 애착, 아버지와 관련된 애착, 조부모등 다른 양육자와 관련된 애착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이 방면의 국내 선행연구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종일보육이나 주말까지도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말보육을 받는 영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와 보육교사와의 애착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Shaffer와 Emerson은 유아는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착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유아 발달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이영환, 1995), Russell과 Radin(1983)의 연구에서도 유아-아버지 관계가 유아-어머니 관계보다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아버지와 유아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서명원, 2009,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애착연구에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동향에 맞추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고려한 애착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서명원, 2009; 이영환, 2002; 이영환·이진숙, 2003; 이희영·최태진, 2007)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이란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는 능력으로 아동이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며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의 적응을 비롯한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Anderson & Messick, 1974; Chen, Rubin & Li, 1995; Parker & Asher, 1987; Raver & Zigler, 1997; Waters, Wippman & Sroufe, 1983; 이경숙·박진아, 2004 재인용).

특히 아동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유능감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아동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감의 질은 청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현주, 2009).

아동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상을 습득하게 되므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Cohn(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학교에서도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며,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기술이 달라지고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며,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바람직한 기준과 가치가 사회, 문화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사회, 문화, 개인의 가치와 연구자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배효심, 2007).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정의하였는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필요하다.

사회적 유능감을 정의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한다(김현주, 2009).

첫째는 진화론적 입장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생존에 필요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능력으로 보는 동물 행동학적 접근 방식이다.

둘째는 사회적 유능감을 인간의 성격구조 중 긍정적 속성으로 보는 인성구조론적 접근방식이다.

셋째는 사회적 유능감을 자신과 타인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기술로

보는 사회 상호작용적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본 사회적 유능감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보는 Attili(1990)는 사회적 유능감은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단기적, 장기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각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최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유능감을 관계 수준에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관계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 입장으로 보는 O'Malley(1977)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사회적 유능감이라고 보았는데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성격구조 입장으로 보는 Schaefer(1961)는 애정, 외향성, 접근성 등을 긍정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속성을 사회적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고, 적대감, 복종, 내향성, 회피성 등은 부정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결국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이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뜻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특성을 말하며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감정들로 표현하게 된다(노윤성, 2007).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행동들은 아동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이며, 학업성취의 예언도를 높일 수 있고, 사회적 발달에 비해 아동의 행동을 통합된 영역으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이유에서이다(김민경, 2009). O'Malley(1977)은 아동기부터 사회적으로 거부된 청소년은 청년기 및 성인 초기에도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학업성취 및 신체적 매력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그리고 이후의 적응상태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녀의 발달에 있어 부모 모두

의 애착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을 연구해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발달에 있는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능력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필수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성격특성으로서 가족 내의 기초적인 대인관계가 잘 형성되면 사회성도 더욱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천성적인 능력이기 보다는 가정 내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후천적으로 발달시키는 능력임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의 연령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산업화 및 전문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부응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가족구조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아동들이 가족 내 부모 외의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가정내 부모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어지고 있다.

Bowlby는 애착대상에 대한 실행 모델과 자아에 대한 실행 모델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달하면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 사고, 느낌을 조절, 해석, 예견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는 애착 대상과 자아에 대한 실행모델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적응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곽은영, 2010).

Lieberman(1977)은 안정 애착 아동은 또래와 상호 작용시 호혜적 행동(공유하기)과 쌍방적인 상호작용(reciprocal interaction)을 비교적 많이 하고 부적 행동(울기, 신체적 공격, 언어적 위협)을 적게 하지만 불안정 애착 아동은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배효심, 2007, 재인용).

이희영·최태진(2007)의 연구에서 부모 애착정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현주(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불안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보다 또래관계에서 더 친사회적이고, 유능하다고 하였다.

최근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애착의 전 생애 발달이론은 애착관계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애착관계의 질은 아동의 적응 또는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애착의 질에 따라 아동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박연경, 2006). Kenny(1987)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 사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애착의 질은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roufe와 동료들은 미네소타 종단연구에서 아동기에 형성된 안정애착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고 또래와의 관계가 주는 기쁨을 기대할 수 있게 하며(동기적 토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며(태도적 토대), 실제로 또래친구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또래와 함께 놀이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도구적 토대), 또래와의 다툼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정서적 토대). 또한 이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 있게 친구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유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이성적 토대) (정옥분 외, 2009).

특히 학령후기에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급진적으로 확장되는데 이 시기에 아동들은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쌓아가며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게 된다(문소현, 2010). 이때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가 일관되게 만족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지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불신을 하면서 부정적인 자아상과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기본적인 안전 기능(양육자를 통해 약한 어린이들에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애착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몇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틀이 되고 있다(Levy와 Orlands, 1995, 1998; 김준경, 2007, 재인용).

첫째, 아동이 모든 미래의 감정적 관계를 위한 모델을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신뢰와 상호관계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건전한 인식과 사회적 발달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감정(secure base)으로 환경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충동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자아조절 능력을 발달시킨다.

넷째, 적성, 자아가치 그리고 자율과 의존의 사이에 균형적인 감각을 포함하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에 기초를 마련해준다.

다섯째, 감정이입, 동정, 양심 과 연관된 도덕적 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보편적으로 자아, 보호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중요한 믿음체계를 발생시킨다.

일곱째,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추게 하여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준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애착으로 인생을 시작한 아동들은 발달과정의 모든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잘 적응하게 된다.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Elicker, Englund와 Sroufe(1992)도 안정애착관계가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이유에 대해 보호자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도록 하게 하며,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상호관계와 공감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의 본질에 대해 배우며, 보호자의 반응적 보살핌은 아동이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도록 해준다고 하였다(김현주, 2009, 재인용).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이다. 실제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아동은 또래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조롱당하기도 하며, 비협조적이어서 교우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생활에도 부적응하게 된다. 이렇듯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술을 갖지 못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 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노윤성, 2007).

Papini와 Roggman(1992)의 연구에서도 특히 아동 후기에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

되고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고, 불안 및 우울 증상 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우수하다고 보고했고,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관계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살펴본 고윤주·이은혜(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불안정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부모와 의사소통의 기회가 부족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낮으며, 부모와의 거리감을 경험하면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에 비해 그들 스스로 원만한 또래관계형성을 위한 발달적 과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양육자와의 신호와 반응에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이후의 사회관계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타인에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타인이 자신에게 반응할 것인지를 기대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연결되어진다.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은 아동들의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은 차이가 있고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상대적이며 부모 각각이 주는 애착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현재까지는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아버지나 어머니중 단일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해 왔다는 제한점이 있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이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청년기 이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달해 나간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을 더 확장하여 학령후기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안정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

가.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부모의 개념은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전통적 역할인 도구적, 수

단적 역할 특성과 더불어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인 표현적, 애정적 역할 특성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규정되는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역할 형태인 양성적(androgynous)역할로 변화하고 있다(양득주, 1998).

아버지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관점은 아버지를 어머니의 단순한 보조자나 자녀의 놀이친구로서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Bigner는 아기를 안아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가 다른데, 어머니는 아기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아 주지만, 아버지는 아기가 원할 때나 아기와 놀아주기 위해서 안아준다고 보았다. 이렇게 어머니와는 다른 순간에 아기를 안아주는 것은 아기의 심리적인 상태에 다른 자극을 준다고 하였다.

Parke는 자녀와 놀아주는 놀이형태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큰 차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머니는 언어적으로 놀아주는 형태이지만 아버지는 신체적, 활동적인 놀이형태로 자녀와 놀아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한순(1995)은 부모는 각각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유아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쪽의 영향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이나 참여가 지난 2세기 동안에 변화되어 온 과정은 Pleck의 연구에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아버지의 역할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도덕적 안내자(the moral teacher), 가족부양자(the breadwinner), 성역할 모델(the sex role model), 양육적인 보호자(nurturant caretaker)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김현진, 2009).

국내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애착과 관련된 연구(이영환, 1992; 이영환, 1994; 이영환, 백지은, 1998; 이영환, 2001)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과 애착대상이 어머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아버지와 유아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소라(2003)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회라는 외부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가정에서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시해 주므로 자녀들이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성인기로 접어들수록 아버지 역할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한명숙(2007)은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적극적이고, 높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주소영(1995)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와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는데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공감도나 친밀도에 의해 자녀의 대인관계와 성향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Grossmann(1997)의 연구에서는 민감하고 구성적인 아버지의 놀이행동 즉, 아동이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동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필요할 경우 정서적 혹은 육체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행동이, 아동이 16세가 되었을 때의 안정된 애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아기를 보살피 줄 때의 민감성보다는 놀이상황에서의 민감성이 아버지에 대한 안정된 애착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곽은영, 2010, 재인용).

이영환과 백지은(1998)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보고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본 최경순(1993)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아동과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지도력이 높으며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많은 연구에서도 아버지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면 사회적 유능감도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민경, 2009; 김현주, 2009; 김현진, 2009; 박경희, 2005; 이하경, 2003; 이희영·최태진, 2007).

이와 같이 부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는 인성적인 발달이 안정되어 있지만,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는 이후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정서적인 우울과 인성적인 혼돈을 겪게 되며, 심지어 다양한 부적응문제행동이 야기된다고 한다(김현지, 2003). 특히 아버지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하게 될 경우 불안이 심해지며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한다(Malcolm, 1995; 노윤성, 2007, 재인용).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은 유능한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어머니와 비교하여 아버지들이 실제로 어

떻게 행동하며, 그러한 결과가 유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이영환, 1993).

이런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성역할 학습, 인지발달, 성취동기 및 직업선택 등 제반 영역에서 어머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고(이영순, 1988), 신지영(2002)은 아버지의 애착이 어머니의 애착보다 교우관계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유능함과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과 애착을 형성하는 양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아동이 습득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전담하도록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애착의 주제도 주로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되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관계 측면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발달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게 대부분이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애정적 유대관계 측면에서 사회적 능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점점 아버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버지와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회적 반응은 영아기에 어머니 혹은 대리 양육자에게 보이는 애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애착 연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주 양육자였던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owlby도 어머니와의 애착은 아동의 정서 상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3세 전 애착 형성의 시기에 어머니로부터의 격리는 유아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저해하고 애착 발달에 문제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서연주, 2006).

심리학적으로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접근했던 Freud(1897)도 구강기에 있는 유아가 수유를 통한 기본욕구 충족과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되므로 어머니의 역할이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나종혜, 1994, 재인용).

이와 같이 유아는 어머니와 친밀한 애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수적인 애정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는 그 아이가 자라서 갖게 될 대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김영옥, 2003).

Ainsworth(1979)가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실험에 의하면 유아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는 유아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행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첫째는 유아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는 유아가 울음으로 신호를 보낼 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보다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을 하였으며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유아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유아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신호를 보낼 때면 이를 빠르게 감지 및 해석하여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었다.

셋째는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애정표현을 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다.

넷째는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신체접촉시도 일관적인 반응과 표현을 하였다.

애착연구에서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우세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연구도 있지만(노신민, 2004) 보통은 어머니가 1차 양육자인 상황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질이 더 강한 예측력을 갖는다고 기대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몇몇 연구(Main, Kaplan, Cassidy, 1985; Suess, Grossmann, Sroufe, 1992; 이희영·최태진, 2007, 재인용)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영아와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며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1차적인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애착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영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들 간에 인기가 있고, 리더가 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불안정 애착의 아동보다 낯선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더 많이 보였다 (Sroufe, 1983; Water, Wippman, & Sourfe, 1979).

또한 12~19개월경에 엄마에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엄마 말을 더 잘 듣고 낯선 성인과 더 잘 어울리며, 다른 유아와 더 잘 어울리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래 유아에게 더 다정하고 사교적이며 인기가 있었다(Thompson & Lamb, 1983; 김현주, 2009, 재인용).

국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숙과 정미자(1995), 지수경(2001), 이수하(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에 대한 애착보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또래관계, 사회정서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숙희와 김숙령(1996), 이희영과 최태진(2007), 홍계옥과 최경순(1995)의 연구에서도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더 유능한 반면 과민한 성향은 낮으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사회적으로 덜 유능하고 지도력이 낮으며 과민한 성향은 높게 나와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노명희(1995)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사교성, 인기도 및 지도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이진숙(2005)도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종단 연구에서 2세 때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이 3세 때의 사회적 능력을 부분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여, 영유아의 모 애착 및 정서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동기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적응과 사회적 발달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 복합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친밀한 애착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수적인 애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한 부모 혹은 다른 양육자를 함께 고려한 복합애착 연구에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쟁점이 있는데 양육자간에 애착 유형이 서로 일치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지에 대한 문제와 애착의 연합적 영향력(joint effect) 혹은 상보적 영향력(compensatory effect)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Bretherton(1985)은 양육자의 서로 다른 반응양식은 유아에게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하며 서로 다른 질과 양식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육자는 유아의 안정에 대한 요구에 그들의 민감도와 반응도가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아와 상호작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부모 혹은 한 양육자와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다른 양육자와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환(2002), 이영환과 이진숙(2003)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행동이 일관적인 이유는 영아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일치성을 주장하였고, Belsky, Rovine, & Taylor(1984)의 연구에서는 애착의 관계적 입장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의 독립성을 주장하였다(서명원, 2009, 재인용).

Howes(1999)는 위와 같이 복합애착 관계 내에서 영아의 내적실행모델의 형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위계적 형성 모델로써 영아의 어머니와 타인 양육자에 대한 애착형성과정이 위계적인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영아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처음으로 형성한 애착의 질은 이후에 형성되는 타인과의 애착형성에 위계적인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둘째, 통합적 형성 모델로써 영아의 내적실행모델이 단 하나의 유력한 애착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형성한 다양한 애착관계에 의해 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즉, 독립적인 각각의 애착관계가 연합

되어 영아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독립적 형성 모델로써 어머니와 타 양육자에 의한 애착의 길은 서로 독립적이며,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라는 견해이다. 독립적 형성모델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아버지와 영아의 애착관계가 상호적 갈등상황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긴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되는 반면,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관계는 보다 일반적인 아동발달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영아가 주로 어머니에게 양육되었던 초기 애착이론은 내적실행모델의 위계적 형성 모델을 지지하였으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속에 취업모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 양육 받는 영아가 증가하는 최근에는 영아의 애착관계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애착관계가 연합하여 영아발달에 통합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아의 특정 발달영역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내적실행모델의 통합적 또는 독립적 형성 모델이 많은 애착 연구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증가로 인해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국내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애착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an Ijzendoorn(1992)와 Mitchell(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불안정하게 애착한 유아일지라도 교사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발달에 최상의 영향을 미치는 않아도 완충기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며, 유아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교사와의 안정애착이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을 보상한다고 하였다.

신지연(2004)은 종일제 보육시설에 다니는 24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 100명의 어머니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이 가정과 일상에서 충동적, 공격적, 반항적인 문제행동을 가장 적게 보였으며, 양육자 모두에게 불안정 애착한 영아들이 가장 많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였는데 어머니와는 불안정 애착되었지만 보육교사와 안정 애착한 영아들은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불안정 애착한 영아들보다는 외현적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서 보육교사와의 안정애착이 비록 최상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모 애착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교사 애착이 이를 보완하거나 보상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김영명, 1997; 배효심, 2007; 손혜숙, 1998), 유아와 교사간의 애착은 유아와 어머니간의 애착관계에 거의 영향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것이며 교사와의 애착은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 관계일때 사회적 발달에 보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은 대상을 달리하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복합애착과 사회적 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Verschueren과 Marcoen(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된 유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보여 주었고, 어머니나 아버지 중 어느 한 쪽과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양쪽 모두에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는 낮으나 양쪽 모두에게 불안정 애착된 유아보다는 높은 사회·정서적 발달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희영·최태진(2007)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 복합애착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높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과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낮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중 어느 한쪽의 애착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다른 한쪽이 이를 보완하거나 보상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명원(2009)이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애착유형에 따른 인지·사회·정서능력에 대한 능력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부모 모두와 안정애착 일치률 보인 유아가 애착 불일치를 보인 유아보다 외현적 행동 문제를 덜 보였으며, 총 사회능력에서 더 잘 기능하며 불일치 애착을 보인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에서 불안정 애착 일치률 보인 유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한 부모에 대한 안정애착이 다른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을 보상하거나 완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완충 영향이나 보상 작용이 완전하지는 않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위의 결과들과는 다르게 이영환(2002)의 만 3세 유아와 부모 9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형성한 애착유형이 일치한다고 보고하면서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와 어느 한 쪽에게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까지 복합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불일치하고 있어서 실증적 검증을 통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갈수록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면서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질적인 특성으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속해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은 아동 발달에 있어 애착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령후기 아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조직화된 집단과 또래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조절을 잘 해야 하므로 사회적 유능감은 이 시기 아동의 발달상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며 또한 발달단계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학령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감의 질은 이후 청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Crick, 1996; Kupersmidt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 이경숙·박진아, 2004, 재인용)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13개 초등학교 5, 6학년 중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씩을 선별하였고, 부모에 대한 애착,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질문지 845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질문지와 무응답 질문지, 부모 모두 계시지 않은 질문지 109부를 제외한 나머지 73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III-1> 인구학적 통계

구 분		빈 도(명)	백 분 율(%)
성별	남	375	51.0
	여	361	49.0
학년별	5학년	296	40.2
	6학년	440	59.8
전체		736	100.0

2. 연구도구

가. 부모 애착 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를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김진아(2006)가 또래애착 척도는 제외하고 부모 애착 척도만 발췌하여서 문항내용과 구성 및 채점방식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지, 문항내용중 초등학교 5,6학년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친숙한 어휘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IPPA-R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하도록 설계되었다. 부, 모의 애착척도가 각각 25문항으로 내용은 동일하며,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항상 그렇다(5)’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내용의 문항은 모두 역채점 하여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부모와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신뢰감은 부모가 아동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아동도 부모를 믿음직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외감은 아동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부 애착은 .94, 모 애착은 .9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표 III-2>과 같다.

<표 III-2> 부모 애착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신뢰도(김진아)		신뢰도(연구자)	
			부	모	부	모
의사소통	9	1,6*,7,12,15,16,19,21,25	.84	.82	.89	.88
신뢰감	10	2,3*,4,5,9*,13,17*,20,22,24	.84	.80	.87	.87
소외감	6	8*,10*,11*,14*,18*,23*	.64	.63	.73	.71
전체	25		.92	.91	.94	.93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나. 사회적 유능감 척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적 능력 검사를 초등학생들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왕정희(2001)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5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및 인기도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 ‘조금 그렇지 않다(2)’, ‘조금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성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행동을 나타내며 더 쉽게 친구를 사귄다는 내용을, 대인적응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사회참여도는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에 활발히 참여하는 내용을, 주도성은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이끌어나가고 친구들에게 지시를 잘하며 그러한 행동을 친구들이 잘 따라 한다는 내용을, 인기도는 재미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6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Ⅲ-3> 사회적 유능감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신뢰도(왕정희)	신뢰도(연구자)
사교성	10	1-10	.86	.85
대인적응성	10	11-20	.83	.85
사회참여도	10	21-30	.91	.91
주도성	10	31-40	.89	.91
인기도	10	41-50	.90	.93
전체	50		.96	.96

3. 연구절차

본 검사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 1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기로 한 해당 학교의 교사를 직접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 후 질문지를 전달하고 검사 실시상의 유의점을 전달하였다. 담임 교사의 주도하에 특활 및 재량 등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검사시간은 30~40분 정도로 충분히 주게 하였다. 작성한 질문지는 검사를 실시한 1주일 후에 연구자가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를 통하여 직접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 애착, 모 애착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 애착, 모 애착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 애착을 각각 상위 25%, 하위 25%로 나누어 애착상위-애착하위 집단을 설정하였다. 각 애착수준에 따른 두 집단(상위, 하위집단)을 상호 교차하여 하위 4개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집단별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네 집단 구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으며, 네 개 집단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Scheffé 방식에 따른 사후비교(Post-hoc test)를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각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측정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부 애착	의사소통	3.51	.88
	신뢰감	3.64	.56
	소외감	3.65	.78
모 애착	의사소통	3.66	.85
	신뢰감	3.73	.53
	소외감	3.71	.76
사회적 유능감	사교성	2.87	.56
	대인적응성	2.80	.55
	사회참여도	3.33	.60
	주도성	2.61	.67
	인기도	2.46	.70

아동의 부 애착의 세 하위요인의 평균은 5점 Likert 척도 기준에서 의사소통 3.51, 신뢰감 3.64, 소외감 3.6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 애착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3.66, 신뢰감 3.73, 소외감 3.71로 나타났다. 부, 모 애착의 각각 하위요인의 평균은 모의 경우가 부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은 사교성 2.87, 대인적응성 2.80, 사회참여도 3.33, 주도성 2.61, 인기도 2.46으로 측정되었다. 인기도 평균이 다른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게 나온 것에 대하여는 본 애착검사가 자기보고식검사여서 자신이 타 또래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가설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부, 모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IV-2>과 같으며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2>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부 애착	모 애착	사회적 유능감
부 애착			
모 애착	.84**		
사회적 유능감	.38**	.36**	

**p<.01

<표 IV-3> 부, 모 애착 하위요인 및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FC	FT	FI	MC	MT	MI	B	A	P	L	F
FC											
FR	.80**										
FI	.67**	.54**									
MC	.83**	.67**	.56**								
MR	.66**	.83**	.43**	.78**							
MI	.56**	.43**	.86**	.63**	.48**						
B	.32**	.28**	.20**	.32**	.27**	.20**					
A	.34**	.31**	.23**	.36**	.28**	.24**	.49**				
P	.28**	.27**	.18**	.27**	.26**	.17**	.58**	.34**			
L	.35**	.29**	.21**	.31**	.24**	.18**	.65**	.52**	.59**		
F	.30**	.26**	.19**	.26**	.22**	.18**	.62**	.48**	.52**	.78**	

변인명 MT 모 신뢰감, MC 모 의사소통, MT 모 소외감, FR 부 신뢰감, FC 부 의사소통, FI 부 소외감, B 사교성, A 대인적응성, P 사회참여도, L 주도성, F 인기도

**p<.0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r=.38\sim.84$, $p<.01$).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부 애착과 모 애착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43\sim.86$, $p<.01$). 즉, 아동이 부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모와의 애착도 안정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부, 모의 애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부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r=.19\sim.35$, $p<.01$) 그 중에서도 부의 의사소통과 주도성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5$, $p<.01$).

모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r=.18\sim.36$, $p<.01$) 그 중에서도 모의 의사소통과 대인적응성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6$, $p<.01$).

2. 부,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1. 부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 애착 3개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5개(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와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대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IV-4>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736)

종속변인	R ²	독립변인 (부 애착)	B	β	t	p
사회적 유능감 전체	.15	부 의사소통	.221	.392	11.557	.000
		(상수)	2.037		29.459	.000
사교성	.10	부 의사소통	.204	.320	9.149	.000
		(상수)	2.157		26.787	.000
대인 적응성	.12	부 의사소통	.212	.342	9.847	.000
		(상수)	2.052		26.352	.000
사회 참여도	.08	부 의사소통	.119	.175	2.995	.003
		부 신뢰감	.135	.126	2.150	.032
주도성	.12	(상수)	2.417		16.521	.000
		부 의사소통	.262	.347	10.013	.000
인기도	.09	(상수)	1.688		17.803	.000
		부 의사소통	.240	.302	8.586	.000
		(상수)	1.618		16.017	.000

우선 부 애착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에 대한 종속변인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부 애착의 하위변인 중에서 의사소통만이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1.557$, $p<.001$). 부 애착 중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에 15%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R^2 값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결과를 보면, 부 애착은 대인 적응성과 주도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가장 높은 $R^2=.12$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 대인 적응성,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교성 ($R^2=.10$), 인기도($R^2=.09$), 사회 참여도($R^2=.08$)의 순으로 부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 애착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주도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7$). 둘째, 신뢰감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6$).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 애착에서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적응성과 주도성은 부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2.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 애착 3개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5개(사교성, 대인적
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와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대하여 단계적 회
귀분석(stepwise-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IV-5>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736)

종속변인	R ²	독립변인 (모 애착)	B	β	t	p
사회적 유능감 전체	.14	모 의사소통	.216	.371	10.827	.000
		(상수)	2.019		26.848	.000
사교성	.10	모 의사소통	.209	.317	9.043	.000
		(상수)	2.106		24.256	.000
대인 적응성	.13	모 의사소통	.229	.356	10.314	.000
		(상수)	1.958		23.470	.000
사회 참여도	.08	모 의사소통	.114	.162	2.895	.004
		모 신뢰감	.156	.138	2.454	.014
주도성	.10	(상수)	2.324		14.802	.000
		모 의사소통	.242	.308	8.778	.000
인기도	.07	(상수)	1.723		16.633	.000
		모 의사소통	.214	.261	7.314	.000
		(상수)	1.674		15.189	.000

우선 모 애착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에 대한 종속변인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 애착 하위요인 중에서 의사소통만
이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0.827,
p<.001). 모 애착 중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에 14%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 애착
의 상대적 중요성을 R² 값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결과를 보면, 모 애착은 대인
적응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가장 높은 R²=.13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 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으로 사교성과 주도성 ($R^2=.10$), 사회참여도($R^2=.08$), 인기도($R^2=.07$)의 순으로 모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 애착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6$). 둘째, 신뢰감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38$).

결과적으로 아동의 모 애착에서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으로 유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적응성은 모의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가설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애착을 각각 상위 25%, 하위 25%로 나누어 애착상위-애착하위 집단을 설정하였다. 각 애착수준에 따른 두 집단(상위, 하위집단)을 상호 교차하여 하위 4개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집단별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네 집단 구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네 개 집단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Scheffé* 방식에 따른 사후비교를 수행하였다.

<표 IV-6> 부 애착 상위-하위 집단별 분포

	집단구분	N	%
부 애착	상위집단	199	51.4
	하위집단	188	48.6
	전체	387	100

아동이 지각한 부 애착의 상위 25%는 199명으로 전체 387명 중에서 51.4%를 차지했고, 하위집단은 188명으로 48.6%를 차지했다.

<표 IV-7> 모 애착 상위-하위 집단별 분포

	집단구분	N	%
모 애착	상위집단	186	48.4
	하위집단	198	51.6
	전체	352	100

아동이 지각한 모 애착의 상위 25%는 186명으로 전체 352명 중에서 48.4%를 차지했고, 하위집단은 198명으로 51.6%를 차지했다.

<표 IV-8>은 부 애착 수준(상위, 하위)과 모 애착 수준(상위, 하위)에 따른 각각의 두 집단을 상호 교차하여 4가지 형태의 복합애착 유형(상위-상위, 상위-하위, 하위-상위, 하위-하위)으로 결합한 다음 4개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표 IV-8>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하위집단별 분포

	상위-상위	상위-하위	하위-상위	하위-하위	전 체
N	157	3	3	147	310
백분위	50.6	1.0	1.0	47.4	10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 복합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이 전체 310명중 부-모의 순서로 안정-안정 일치 애착 유형인 상위-상위 집단이 157명(50.6%), 불안정-불안정 애착 일치 유형인 하위-하위 집단은 147명(47.4%)이다. 따라서 부-모 애착 일치형은 모두 304명(98%)이다.

다음은 불안정-안정 애착 불일치 유형인 상위-하위 집단은 3명(1%), 안정-불안정 애착 불일치 유형인 하위-상위 집단은 3명(1%)이다. 따라서 애착 불일치형은 6명(2%)이다.

부-모 복합애착유형 각 집단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9>와 같다.

<표 IV-9>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상위-상위(A)	157	3.12	.45
상위-하위(B)	3	2.81	.08
하위-상위(C)	3	3.00	.43
하위-하위(D)	147	2.58	.51
합계	310	2.86	.55

부-모 모두 안정애착인 상위-상위 집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은 3.12, 표준편차는 .45이고, 부와는 안정애착, 모와는 불안정 애착인 상위-하위 집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평균은 2.81 표준편차는 .08이고, 부와는 불안정 애착, 모와는 안정애착인 하위-상위집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평균은 3.00, 표준편차는 .43이며, 부-모 모두 불안정 애착인 하위-하위집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은 2.58, 표준편차는 .51로서 유능감 전체 평균이 부-모 애착 순서로 상위-상위(A)> 하위-상위(C)>상위-하위(B)>하위-하위(D) 로 나타났다.

<표 IV-10>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Scheffé
부-모 복합애착유형	22.50	3	7.50	32.74***	A>D
오차	70.01	306	.229		
합계	95.59	309			

***p<.001

<표 IV-10>은 부-모 복합애착유형에 따른 네 집단 구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32.74, 유의수준 $p<.001$ 으로 부-모 복합애착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후비교를 통해 네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F=32.74^{***}$)는 상위-상위(A)와 하위-하위(D)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고, 부-모 모두와 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불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상호 결합된 부-모 복합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를 살펴본 결과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 애착과 모 애착의 모든 하위요인에서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이 부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모와의 애착도 안정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부와 모의 애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어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김재현, 2007; 이희영·최태진, 2007; 김현주, 2009)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부, 모와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이러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이숙희·김숙령, 1996; 박응임, 1998; 이하경, 2003; 배효심, 2007; 이희영·최태진, 2007; 김현주,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모와 유아 간의 애착뿐만 아니라 부, 모와 아동 간의 애착 또한 사회적 유능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사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 애착 중 부 의사소통은 주도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의 경우에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의 의사소통과 대인적응성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2>중 부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부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 적응성과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주(2009)의 연구에서 부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중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서명원(2009)의 연구에서도 아버지는 아이들이 좌절에 부딪쳐도 쉽게 도와주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가 잘 보살핀 영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탐색하는데 덜 불안해하고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활발하게 탐색하기 때문에 주도성을 키우는데 부 애착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 애착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5개 하위요인과 모두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현주, 2009; 신지영, 2002; 이하경, 2003)와 일치하며 특히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민경(2009)의 연구에서 부-자녀간의 애착의 하위요인중 부-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박경희(2005)가 부모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부의 의사소통이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또한, 안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대화기술 발달을 촉진한다는 Feeney와 Noller(1996)의 이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이하경, 2003, 재인용). 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리더쉽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심원희(2003)와 허주연(2005)의 연구에서도 부와의 상호작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안정적이고 높은 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신뢰감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윤성(2007)의 연구에서 부-자녀간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참여도와 사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김현주(2009)의 부의 신뢰감이 대인적응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신지영

(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신뢰감 형성이 잘 될수록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며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애착 관계의 중요성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학령후기 아동에게도 부 애착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과거 가족부양의 책임만 요구되던 아버지의 역할의 변화로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버지들이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어머니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셋째, <연구문제 3>중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효심(2007), 김현주(2009)의 연구에서 모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중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 애착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경희(2005)의 연구에서 모 애착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중 사교성과 주도성 두 요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김민경(2009)의 연구에서 대인적응성에는 모 애착의 세 가지 하위요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와 마찬가지로 모와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으로 유능함을 알 수 있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왕따 문제를 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뢰감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노명희(1995)의 연구에서 모와의 신뢰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사회참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박경희(2005)가 모 애착의 신뢰감은 사회적 유능감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에 대해 느끼는 신뢰감이 높

을수록 또래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부,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행동을 나타내고, 친구를 쉽게 사귀며, 또래와 상호작용시 협동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놀이에 활발히 참여하며,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친구들을 잘 이끌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여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애착의 내적수행모델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높게 받아들임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다는 애착이론의 내적수행모델 가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정도가 이후 아동이 맺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감과 긍정적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어 아동의 발달에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착 중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조윤정과 김경신(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 문제 행동은 가족 간 의사소통과 부적절한 유의상관을 나타냄을 밝히면서 가족 내 특히, 부모와의 따뜻한 대화나 애정적 표현의 중요함을 시사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아동들이 또래관계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와의 대화의 단절로 인해 청소년 비행등 학교부적응이 늘어나고 왕따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연구문제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를 살펴본 결과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유의하게 다르며, 부-모 모두와 높은 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낮은 불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왔다.

이는 Howes(1999)가 복합애착 관계 내에서 영아의 내적모델의 형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제시한 세 가지 모델중 위계적 형성 모델을 지지하

는 결과이며, 오성경(2010)이 부모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서 부모와의 안정애착 점수가 높은 아동들이 회피, 양가애착의 불안정 애착의 아동들보다 사회적 유능감의 점수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이라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 불안정 애착 일치 아동이 부모 모두에게 높은 안정애착 일치 아동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지만 부모 모두와 불안정 일치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높아서 부모중 어느 한쪽의 애착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다른 한쪽이 이를 보완하거나 보상적 역할을 할 수 있다(Verschueren· Marcoen, 1999; 서명원, 2009; 이희영· 최태진, 2007)는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한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다른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을 보상하거나 완충할 수 있다는 부모 복합애착유형의 연합적 혹은 상보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상이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복합애착유형으로 분류된 아동 31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애착 유형의 일치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모의 순서로 안정-안정 일치 애착유형이 157명(50.6%), 불안정-불안정 애착 일치 유형은 147명(47.4%)로 일치형은 모두 304명(98%)이었고 불안정-안정 애착유형 3명(1%), 안정-불안정 애착유형 3명(1%)으로 불일치 애착유형은 6명(2%)에 불과했다. 이러한 애착 일치형의 비율이 불일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서명원(2009), 이영환(2002), 이영환· 이진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애착의 기질적 특성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유사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애착의 기질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지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또 다른 양육자에 대한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애착의 관계적 입장과 기질적 입장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좀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좀 더 확실히 규명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상에서 나타난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 안정 애착 일치 아동이 부-모 불안정 애착 일치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 또한 복합 애착 관계내의 위계적 형성 모델을 지지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에 들어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고 아버지가 어머니와는 다른 질적인 특성으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1차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는 더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하여 자녀와 어머니와의 상호 신뢰적인 애착관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에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고 일반화시키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령후기에는 아동의 성차가 뚜렷해지는 시기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척도는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의 수준으로 인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사회적 유능감 부분에 있어서 자기보고와 함께 타인의 보고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을 각각 상위 25%, 하위 25%로 나누어서 애착상위-애착 하위 집단을 설정하여 부-모 애착의 순서로 4개의 복합애착유형으로 나누었는데 부-모 복합애착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이 전체 310명중 부-모의 순서로 안정-안정 일치 애착유형이 157명(50.6%), 불안정-안정 불일치 애착유형 3명(1%), 안정-불안정 불일치 애착유형 3명(1%), 불안정-불안정 불일치 애착 유형은 147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일치유형 304명(98%)에 비해 불일치 애착유형이 6명(2%)으로 현저히 적어서 애착의 일치여부는 밝혀냈지만 상대적인 예측력과 상보적 영향력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규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표집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 모에 대한 애착은 근본적으로 상호 높은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애착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애착의 형태로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애착의 상보적 또는 연합적 영향력 여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복합애착유형과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기의 바람직한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근거로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하여 부모와 아동간의 애착(특히,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둘째, 애착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존에는 모 애착만을 주로 다루거나 부 애착만을 단독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모두 고려하여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따로 분리하여 측정하였으며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의 결과에 의해 복합 애착 관계 내의 위계적 형성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고운주·이은혜(2000).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방식 및 친구관계망간의 구조모델.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3), 25-42.
- 곽은영(2010).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정서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경(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사회성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2003).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3).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현(2007). 부모 애착 및 아동의 정서지능과 친구관계 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경(2007).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아(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9).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2003).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 및 대인관계 성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능력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종혜(1994).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신민(2004).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관련변인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운성(2007). 부-자녀간 애착이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소현(2010). 학령기 아동의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및 우울의 관계: 자기유능감의 매개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6(2), 156-163.
- 민정원(2001).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2005). 부와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성 유능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연경(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와의 모형검증.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응임(200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그 관련변인: 발달적 맥락주의 접근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8, 197-222.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 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효심(2007).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원(2009). 부와 모의 애착표상 일치와 유아의 인지·사회·정서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연주(2006).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복합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숙(1998). 어머니와 교사의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지연(2004).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정서적 행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 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 특성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원희(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축진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 부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득주(1988).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와 취학 전 아동의 성 특정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화(2002).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경(2010).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2000).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박진아(2004). 학령후기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63-81.
- 이수하(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102, 103-112.
- 이숙희·김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영순(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1992).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관한 사례연구. 아동학회지, 13(2), 5-17.
- 이영환(1993). 낯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 (1994). 3세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 : Q-Sort 가정관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08-118.
- 이영환(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전북대학교 논문집**, 40, 195-206.
- 이영환·이진숙(2003).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3, 69-91.
- 이영환·백지은(1998).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1-28.
- 이영환 (200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발달적 결과:단기 종단적연구. **아동학회지**, 22(2), 65-76.
- 이영환 (2002).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 **한국 영유아보육학**, 31(1), 77-90.
- 이진숙(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0, 135-153.
- 이하경(2003).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미(1996).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최태진(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0(1), 23-41.
- 정옥분·정순화·황현주(2009). **애착과 발달**. 서울:학지사.
- 정현희·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 조운정·김경신(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45-65.
- 주소영(1995). **고교생이 지각한 부-자녀간 애정적 유대와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 (2), 115-135 .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숙(2007).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규(2004).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희정(2011). 자녀와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주연(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최경순(1995). 유치원 유아의 모 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1), 101-116.
- Ainsworth, M. D. S.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M. Caldwell & H. N. Ricciu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 3, pp. 21-94). *child Development and society policy*. 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Advances in the study of Behaviour*, 9, 2-52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 16, 427-453.
- Attili, G.(1990). Successful and disconfirmed children in the peer group: Indices of social competence withi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33, 238-249.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
- _____ (1988a).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_____ (1989).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5.
- _____ (1991). Pouring new wine into old bottles: The social self as internal working model. In M. R. Gunner & L.A. Sroufe(Eds.). *Self processes an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23, 1-41.
-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Howes, C., & Ritchie, S. (1999). Attachment organizations in children with difficult life circumsta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logy* 11, 251-268.
- Kenny, M. E.(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itchell, C. J. R. (1996). Child-Teacher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Preschoolers, Child Care). ProQuest-Dissertation Abstracts, AAC9621496(George Mason University, MAI-A 57-03, 1018).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l Quarterly*, 23(1), 29-44.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ce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Schaefer, E. S. (1961). Converg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In J. C. Glidewell (Ed),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Thomas.
- _____ (2000). *Social and pre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
- Sroufe, L . A. (1983). Infant caregiver attachments and patterns of adaptations in preschool.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Verschuere,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s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ener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 183-201.
- van IJzendoorn, M. H., Sagi, A. & Lambermon, M. (1992). The multiple caregiver paradox: Data from Holland and Israel. In R. C. Pianta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 57. Beyond the parent: the role of other adults in children's lives* (pp. 5-27). San Francisco: Jossey-Bass.
-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ABSTRACT>

The influence of Parents Attachment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ong, Yeon-hee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rents attachment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tried to find out which difference of the social competence had according to type of Multiple-Attachment.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assignments:

First, w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econd, does father and mother attachment influence the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ird, is there difference in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type of multiple attach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36 students who were in fifth and sixth grade of 13 elementary schools within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measure children's attachment to parents,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for Children(IPPA-R) invented by Armsden and Greenberg(1987) was used. Social competence was measured using Child's Social Competence Scale which was developed by Park, Gum Ok(1998).

The data collected from this research had been analyzed by the SPSS 18.0 program. the frequency, percentage, Person's correlation, stepwise-regression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quest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ather and mother attachment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lso, father and mother attachment and child social competence measured under the diverse sub-categories had positive correlation.

Second, the children's leadership and adjustment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ren's attachment to father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father and children social competence. Communication, which was also one of sub-categories in attachment to the father, also had an effect on all sub-area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tatistically , social participation was influenced by credibility which are the low factors of father attachment.

Third, the children's adjustment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mothe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ommunication, which was also one of sub-categories in attachment to the mother, also had an effect on all sub-areas of child social competence. statistically , social participation was influenced by credibility which are the low factors of mother attachment.

Forth,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ad differences according to multiple attachment with their father and mother, and in social competence , the children who secure attached to their father and mother showed higher grade than the children insecure attached to th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in social competence , the children who secure attached to their father and mother showed higher than the children insecure attached to them. also the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and mother influence the social competence of the boy and the girl, and the role of the parents is very important for the children to form a social competence.



부 록

<부록 1> 질문지

<부록 2> 부모 애착척도

<부록 3>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척도

<부록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질문지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평상시 부모님에 대해 느끼는 생각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시험도 아니고 공부와도 관계가 없으므로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한 느낌과 생각대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지에는 이름을 쓰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이 하나라도 빠진 질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대답해 주십시오.

♠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0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홍연희

♥ 주의할 점 ♥

1. 설문지에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2. 시간제한은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읽고 답해 주십시오.
3. 질문지는 1쪽에서 6쪽까지이며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야 합니다.
4. 모든 문항의 답은 1개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5. 말의 뜻이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하십시오.

<부록 2> 부모 애착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또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다음의 보기와 같이 아버지(또는 아버지처럼 돌봐주신분)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윗줄에 어머니(또는 어머니처럼 돌봐주신분)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아랫줄에 구분하여 솔직하게 표시(○)해 주세요.

<보 기>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독서를 좋아하신다.	아버지		○			
		어머니				○	

☞ 아버지에 대한 답과 어머니에 대한 답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내 기분을 존중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	아버지					
		어머니					
3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어머니					
4	우리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5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6	부모님에게 내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7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나쁠 때 내 기분을 금방 알아차리신다.	아버지					
		어머니					
8	부모님께 나의 고민을 얘기할 때 나는 창피하고 내가 바보 같다고 느껴진다.	아버지					
		어머니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아버지					
		어머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아버지					
		어머니					
11	내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부모님은 잘 모르신다.	아버지					
		어머니					
12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들어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믿어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14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걱정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내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17	나는 부모님에게 화가 난다.	아버지					
		어머니					
18	부모님은 내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버지					
		어머니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0	우리 부모님은 내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는다.	아버지					
		어머니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4	내가 어떤 일로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때 부모님께 기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25	부모님께서서는 내게 고민이 있다는 걸 아시면 내게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	아버지					
		어머니					

<부록 3>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평소의 태도와 일치하는 칸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2	나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1	2	3	4
3	나는 친구를 쉽게 잘 사귀다.	1	2	3	4
4	나는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잘 사귀다.	1	2	3	4
5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지 않는다.	1	2	3	4
6	나는 새로운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한다.	1	2	3	4
7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8	나는 이웃 사람들과도 잘 사귀다.	1	2	3	4
9	나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1	2	3	4
10	나는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건넨다.	1	2	3	4
11	나는 친구들과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준다.	1	2	3	4
12	나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잘한다.	1	2	3	4
1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다투지 않고 잘 논다.	1	2	3	4
14	나는 기분이 나빠도 친구에게 신경질을 부리지 않는다.	1	2	3	4
15	나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16	나는 나의 입장보다는 친구의 입장을 더 생각해준다.	1	2	3	4
17	나는 주위 사람들이 충고해 주면 고맙게 생각한다.	1	2	3	4
18	나는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1	2	3	4
19	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1	2	3	4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0	나는 친구들과 심한 말다툼은 하지 않는다.	1	2	3	4
21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2	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3	나는 여러 명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4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한다.	1	2	3	4
25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1	2	3	4
26	나는 친구들과 함께 행동할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27	나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8	나는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1	2	3	4
29	나는 친구들과의 게임에 잘 참여한다.	1	2	3	4
30	나는 친구들이 하는 운동이나 놀이에 잘 참여한다.	1	2	3	4
31	나는 친구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	1	2	3	4
32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놀이를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4	친구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른다.	1	2	3	4
35	친구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면 잘 설득시킨다.	1	2	3	4
36	나는 자신 있게 새로운 활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7	나는 게임을 할 때 놀이를 잘 진행해 나간다.	1	2	3	4
38	나는 어려운 일도 내 나름대로 잘 처리한다.	1	2	3	4
39	나는 새로운 일을 자신 있게 시도한다.	1	2	3	4
40	나는 모임에서 진행을 자주 맡는다.	1	2	3	4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41	나는 친구들 모임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있다.	1	2	3	4
42	나는 소풍가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	2	3	4
43	나는 학급에서 친구들을 곧잘 웃긴다.	1	2	3	4
44	친구들이 나를 잘 따른다.	1	2	3	4
45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친구들이 좋아한다.	1	2	3	4
4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1	2	3	4
47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기가 있다.	1	2	3	4
48	나는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다.	1	2	3	4
49	나는 어떤 모임에서도 인기가 있는 편이다.	1	2	3	4
50	친구들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1	2	3	4

♣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II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학년	① 5학년 ② 6학년
성별	① 남 ② 여
가족관계	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신다. ② 아버지만 계신다. ③ 어머니만 계신다. ④ 두 분 다 안 계신다.